

원 지사 첫 공판 앞두고 “재판 미뤄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제 제주지법에 기일변경신청 제출... 오늘 결정될 듯 변호인엔 조국·이재명 사건 담당 법무법인 추가 선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첫 재판에 이를 앞두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원 지사 측은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12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또 원 지사 측은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엔과 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선언기도 함께 냈다. 엘케이비엔과 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의 형

사사건을 맡았었다. 기일 변경은 증인 또는 피고인이 부득이 한 이유로 공판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변론 준비가 미흡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 없이 14일 오후 3시 첫 재판을 진행하기로 공판 기일을 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

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정식재판인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이 14일로 예정된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재판부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즉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즉 세트 홍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목초지에 뿌려진 음식물 퇴비 500t 고약한 냄새로 제주도 도심 덮쳤다

제주시내 악취 진동, 왜...

영농법인 10~11월 퇴비 살포 이후 즉시 로타리작업 안해 동 지역 곳곳 악취민원 발생 액비 등 달리 처분근거 없어

휴일인 11일 오후 제주도 삼양동에서 노형동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악취의 원인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화물센터가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5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20t도 함께 반입돼 1999년부터 가동한 1공장(50t/일)과 2002년부터 가동한 2공장(60t/일)에서 퇴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공법으로 만드는 퇴비화시설 노후화로 지난 5월에는 퇴비를 만들지 못해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우스동에 쌓아두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켰다. 또 퇴비포장 시설도 남아 올해는 퇴비포장도 전혀 하지 못해 쌓아두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한 다며 지난 8월 15일부터 읍면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반입금지를 예고했다가 제주시의 설득에 오는 11월까지 잠정유예한 상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일 500포대 규모의 음식물 퇴비 소포장등을 짓고 있는데, 11월 준공되면 그동안 음식물퇴비를 비포장 상태로 반출하면서 이동과정에서 발생해온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 동지역에 악취를 발생시켰지만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내릴 수 없다고 제

주시는 밝혔다. 가족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는 가족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면 고압이나 개선평형을 내린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비료관리법상 유기질비료에 해당되는데, 시의 지시에 목초지를 갈아엎은 영농조합엔 가할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는 하루평균 14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5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20t도 함께 반입돼 1999년부터 가동한 1공장(50t/일)과 2002년부터 가동한 2공장(60t/일)에서 퇴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공법으로 만드는 퇴비화시설 노후화로 지난 5월에는 퇴비를 만들지 못해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우스동에 쌓아두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켰다. 또 퇴비포장 시설도 남아 올해는 퇴비포장도 전혀 하지 못해 쌓아두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한 다며 지난 8월 15일부터 읍면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반입금지를 예고했다가 제주시의 설득에 오는 11월까지 잠정유예한 상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일 500포대 규모의 음식물 퇴비 소포장등을 짓고 있는데, 11월 준공되면 그동안 음식물퇴비를 비포장 상태로 반출하면서 이동과정에서 발생해온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공무원 상해 40대 벌금형

시위 도중 공무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청 앞 천막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선 제주도 공무원들 손으로 밀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해의 고의성이 없고 적법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 청사 입구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모래 날림 방지시설 설치 분주 12일 제주도 이호태우해수욕장에서 모래가 해안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가림막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주차장 벽 충돌 50대 숨겨

12일 오전 7시 20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학교 관계자인 운전자 A(5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들이선 후 주차를 하던 A씨의 차량 운전석 측면과 벽이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제주소방서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내 지하수 관정 13공 ‘관리부실’

도, 점검 거쳐 복구 명령
기한내 이행 안하면 처분

제주지역 지하수 관정 6000여공 가운데 관리부실 관정은 13공으로 파악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

치기 필요한 관정이 13공,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관정이 12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 4공은 지하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유량계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점검 사업과 병행해 정비할 예정이다.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13공의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제주서 SFTS 13번째 환자 발생

제주에서 열세번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SFTS)환자가 발생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열세번째 환자 A씨(여·87)는 지난 10일 병원 진료 후 혈소판·백혈구 감소 소견을 보여 SFTS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야외활동은 없었으나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지난 5일부터 전신쇠약, 발열·근육통, 설사 증상을 보여 왔다.

SFTS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약(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다. 2011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된 후, 우리나라는 2013년, 일본에서는 2014년 발생이 확인됐다. 사람의 평균치사율이 20%에 육박하는 신종 전염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진드기 활동이 시작되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나타나며 여름을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바깥 활동도 활발하다면 이시기에 주기적으로 진드기를 구제해줘야 한다.

현영희기자 yjhyeon@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시일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